

용두산공원, 매월 둘째·넷째주 토요일 '프리마켓' 연다

등록 2018.03.31 14:26:51



【부산=뉴스시스】허상천 기자 = 부산시설공단은 용두산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·넷째주 토요일에 상설 '프리마켓'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. 2018.03.31. (사진 = 부산시설공단 제공) heraid@newsis.com

【부산=뉴스시스】허상천 기자 =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용두산공원이 새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사한다.

부산시설공단은 용두산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설 프리마켓을 개발·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.

이 곳 상설 프리마켓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·넷째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운영된다.

용두산공원 프리마켓은 부산의 청년작가와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의 콘셉트에 걸맞은 자신의 작품과 소품들을 전시·판매하게 된다.

지역문화축제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'지구인시장'과 용두산공원 '미술의 거리' 작가들이 운영을 맡아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용두산공원 꽃시계 옆 화단 사이 보도에서는 지구인시장이 프리마켓을 펼치고 미술의 거리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. 참가팀의 모집과 관리, 마켓운영 등은 운영단체에서 진행하게 된다.

지구인시장은 60~80개 참여팀을 선정할 계획이다. 일반시민도 참여신청할 수 있다.

아울러 야외 상설무대에서는 자체기획공연 및 일반공연이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.

한편 용두산공원은 부산타워 미디어파사드 구축과 함께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heraid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